

## 부산 화교의 이주를 통해 본 ‘전쟁’과 가족\*

안 미 정\*\*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두 내전이 그린 화교 |
| II. 한국화교 연구의 초점들    | 가족의 지형          |
| III. 20세기 부산 화교의 단상 | V. 맺음말          |

### 개 요

역사적·문화적 층위에서 화교는 한국사회가 이문화의 집단을 접촉하였던 대표적 종족(민족) 집단이라고 하겠으며, 이들의 이주역사와 개인의 생애사는 한국사회의 변동, 즉 식민과 냉전의 역사와 정확히 중첩되어 있다. 한국화교의 특징은 우선 그들의 출신 지역이 대부분 산동성 지역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부산에 거주하였던 화교들의 자료를 근거로 화교 사회의 단상을 파악해 보았으며, 또한 중국과 한국의 잇따른 내전 속에서 “전쟁”을 피해 온 화교들의 가족관계를 살펴보았다. 전쟁 피난민으로서 살기 시작한 부산의 화교 가족들은 단독 이주와 가족집단 이주에 따라 친척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고, 그것은 냉전체제의 영향을 반영, 이분화된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전쟁”을 벌인 일본이 냉전체제 하에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1-B00001). 이 글의 논평과 중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세심히 조언 해주신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gasirian@hanmail.net)

서 화교 1세와 2세들에게는 헤어진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틈새적 공간으로 모색되었고, 혹은 생계기반을 도모할 또 하나의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1세들의 고향가족 상봉 이후 끊어질듯 한 가족/친척의 관계는 다시 복원되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는 또 하나의 '낯선' 상황이 되고 있다.

**주제어** : 한국화교, 이주, 전쟁, 냉전, 가족, 부산

## I. 머리말

국경을 가로지르는 인구의 이동은 21세기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확산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이동의 다변화는 냉전 이후의 '새로운' 현상으로서 글로벌리제이션을 보여주는 혹은 상징하는 대표적 양상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다수의 '외국인'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다문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진출은 세계경제의 노동 분업화와 국가 간 경제적 역학관계와 같은 자본주의 산업경제 측면에서 전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노동자의 이동은 비단 그의 산업노동력 만이 아니라 그/그녀가 가진 문화가 다른 사회로 전이되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인정과 차별, 문화적 동화와 적응, 정체성과 시민권 등의 다양한 차원의 문제가 촉발되므로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취 이문화에 대한 시선을 읽어 내는 작업이 요구되며 그러한 작업 속에서 지금의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현상도 파편화 되지 않은 채 분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문화적 층위에서 화교는 한국사회가 이문화의 집단을 접촉하였던 대표적 종족 집단이라고 하겠으며, 이들의 이주역사와 개인의 생애사에는 한국사회의 변동, 즉 식민과 냉전의 역사와 정확히 중첩되어 있다. 한국화교의 특징은 우선 그들의 출신 지역이 다른 여타의 화교들과 달리 대부분 산동지역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화교 연구가 지역적으로 볼 때 동남아시아 지역에 초점이 모아져 온 데에는 이 지역에 다수의 화교가 분포하고 그들의 활발한 경제적 활동 및 오래된 이주 전통이 주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반면, 한국 화교는 오랜 교류의 역사와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식민지시대와 냉전시대를 거쳐 온 한국 화교는 급속한 인구 변동을 겪어 왔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단일 민족 이념 속 이민족 집단으로서 혹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그들의 위치는 불안정성을 면치 못해 왔음을 짐작하게 된다.

오늘날의 '21세기적' 다문화 현상을 그 자체로 유리되지 않은 채 한국사회가 조망하고자 한다면 혹은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특징이 무엇이고 다문화 정책이 담보해야 할 특수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망을 위해서도 한국화교의 '문화적 위치'를 재조명해보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화교를 중심으로 식민지 시기로부터 해방 이후의 이주 과정과 화교의 생활세계, 특히 냉전체제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단절되어 온 고향의 가족관계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어떻게 재형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한국 화교 연구의 초점들<sup>1)</sup>

한국화교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으며 이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그간의 연구 경향은 연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sup>2)</sup>

우선, 197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화교의 종족성(ethnicity)<sup>3)</sup>과 소수자(minority)에 관한 연구가 있다. 종족성에 관한 연구는 일찍이 한국사회에서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담론이 등장하기 이전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화교는 계급·성·교육·지역 등 기존의 사회경제적 차별요소들과 달리 민족적 요소에 의해 구별 지워진 소수자였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다민족 문화에 대한 시선을 드러낸다. 곧 민족성(종족성)에 의해 소수자로 규정지어지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민족성이 사회적 차별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

- 
- 1) 연구경향과 관련해서는 필자가 학술대회(<해항도시와 국가의 길항관계>, 부산경남사학회·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주최 2010.12.20.)에서 발표하였던 것과 부분적으로 겹친다는 것을 밝혀둔다.
  - 2) 국내에 발표된 화교관련 연구물들은 한국화교 외에도 말레이시아 및 해외 화교 일반에 관한 저작들도 소개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한국화교와 관련한 연구물(주로 논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 3) 화교의 에스니시티(ethnicity)는 박은경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박은경(1979, 1982, 1987)은 에스니시티를 종족성으로 사용하고, 이광규(1997)는 민족성으로 표현한다. ethnicity는 한국어에서 민족 nation의 의미와 중첩되고, 또한 인류학이 부족사회를 연구하여 온 전통 속에서 종족(種族)은 부족 tribe의 의미와도 중첩된다. 이창호(2008a)는 종족성은 종(種)이라는 생물학적 의미에 의해 그리고 부계친 집단을 이르는 종족(宗族)과의 혼동을 피하고, 또한 민족은 민족국가의 성원으로서 국민으로 번역되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글에서는 문맥을 고려해가며 민족성이라 하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시 괄호에 종족성을 병기하도록 하였다.

다.<sup>4)</sup>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데에는 민족성만이 아니라 이에 따른 차별성을 동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둘째, 역사적 접근으로서 한국화교 사회의 형성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주요한 화상(華商)의 활동 또는 주요 사건(배화사건, 중일전쟁 등) 등을 다루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sup>5)</sup> 대개 한국화교 역사의 시작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 경제사에 입각하여 화교사회의 형성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6)</sup>

셋째, 화교의 공간으로 대변되는 차이나타운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차이나타운에 관한 연구경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화교연구에 지리학, 언론정보학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접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sup>7)</sup> 시기적으로 볼 때에도 구한말 청국조계지로부터 최근에

- 
- 4) 장수현, 「한화(韓華), 그 배제의 역사」, 『당대비평』 19호, 생각의 나무, 2002, 245~258쪽.
- 5) 박은경, 「韓國 華僑 社會의 歷史」, 『震檀學報』 제52집, 진단학회, 1981, 97~128쪽;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 2005 (2003); 이정희, 「중일전쟁과 조선화교: 조선의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中國現代史研究』 제35집,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07, 107~129쪽; 이병인, 「近代中國의 海外移民과 ‘故國」, 『東洋史學研究』 제103집, 동양사학회, 2008, 145~180쪽; 손승희, 2009, 「1931년 植民地朝鮮의 排華暴動과 華僑」, 『中國現代史研究』 제41집,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09, 141~165쪽 등을 참조.
- 6) 양필승·이정희, 위의 책(2005), 17~113쪽;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國華僑-冷戰體制と‘祖國’意識』, 三元社, 2008, 43~82쪽.
- 7) 김원경, 「釜山驛 商店街의 패턴1」, 『한국지리학회지』 5(1), 한국지역지리학회, 1999, 25~76쪽; 문성준·서탁, 「인천 차이나타운의 역할」, 『한국언론학보』 52(6), 한국언론정보학회, 2008, 5~24쪽; 이창호, 「차이나타운의 재개발과 의미의 경합: 인천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제41집, 2008a, 209~248쪽; 한동수, 「인천 청국조계지 내 공화춘의 역사변천」, 『중국학보』 제60집, 한국중국학회, 2009, 371~393쪽; 황보영희, 「부산 청국조

이르러 조성되고 있는 ‘차이나타운’에 이르기까지 넓은 시간의 폭을 안고 있다. 화교를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차이나타운은 현재 ‘다문화 공생’의 담론과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모색되고 경합하는 공간으로서 변모하고 있다. 차이나타운이 대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도시의 재개발 과정은 소수자 화교가 공간의 지배적 위치에 있게 되는 ‘지배적 소수자’(dominant minority)로서의 위치에 있게 되고, 도시 속 에스니시티 공간으로서 차이나타운은 화교에게 하나의 상징적 자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이다.<sup>8)</sup>

넷째,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화교의 역사를 고찰하는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 인천, 대구, 마산, 군산, 전주, 부산 지역의 화교가 그 예로 이들의 이주와 정착 및 정체성을 지역(사) 범주에서 다룬다는 점이 다른 연구들과 구분된다.<sup>9)</sup> 흥미로운 사실은 부산의 화교 관련한 연구가 청관조계지, 중화가 등 공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주사나 화교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 화교사회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거시적인 흐름

계지에 관한 연구], 『港都釜山』 제25호, 2009, 411~425쪽 등을 참조.

8) 이창호, 위의 논문(2008a), 240~241쪽.

9) 문은정, 「20세기 전반기 마산지역 화교의 이주와 정착」, 『대구사학』 제68집, 대구사학회, 2002, 155~182쪽; 이정희,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1905~1955년)」, 『大邱史學』 제80집, 대구사학회, 2005, 71~102쪽; 이화승, 「전주 화교사회를 통해 본 한국 화교의 고찰」, 『史林』 제26호, 수선사학회, 2006, 263~284쪽; 이종우, 「한국 화교의 현지화에 관한 연구: 부산 거주 화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정혜중, 「개항기 인천 화상 네트워크와 화교 정착의 특징」, 『중국현대사연구』 제36집,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07, 1~27쪽; 김태만, 『내안의 타자(他者)』, 부산발전연구원, 2009; 김중규, 「화교학교의 역사를 통해 본 화교문화의 형성과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역사문화학회, 2010, 359~402쪽; 李丹·尹寧, 「釜山‘老華僑’的民族與國家認同研究」, 『東亞研究』 제58집, 서강대 동아연구소, 2010, 229~256쪽.

에서 나아가 앞으로 보다 구체화된 지역사와 생활사의 시각에서 화교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화교연구의 주요 특징은 화교의 자본과 네트워크와 관련한 연구를 지적할 수 있다. 화상(華商)의 자본을 국가의 경제적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세계화 담론과 더불어 부상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해외 화교에 대한 주목과 더불어 각국에 분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로서 화교의 자본이 그들이 형성하여 온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동아시아에서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 주체로서 화상의 역할이 비중 있게 조명되고,<sup>10)</sup> 화교와 그들의 네트워크를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국가적 관심을 조명하는 역사적 연구들이 주목된다.<sup>11)</sup> 글로벌 경제 자본의 수요는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국내의 화인 자본을 활용 글로벌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12)</sup>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화교 네트워크는 중국의 경제발전 구상 속에서 경제적 중요성을 획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화교자본의 경제적 가치가 중국만이 아니라 화교가 분포하고 있는 현지 국가들에 있어서도 경제적 이용가치로 화교집단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지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최승현 교수는 중국이 구상하는 화교네트워크의 경제적 역할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화교는 “그들 삶을 둘러싼 다수민족의 압박, 현지정부의 압박, 모국의 압박, 정체성 혼란에 의한 압박” 등의 다양한

10) 강진아, 「韓末 彩票業과 華商 同順泰號: 20세기 초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와 한국」, 『中國近現代史研究』 제40집,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08, 57~85쪽.

11) 최승현, 『화교의 역사 생존의 역사』, 화약고, 2007.

12) 강한균·배국향, 「화인자본의 활용과 한국경제의 글로벌화」, 『국제경영리뷰』9(1), 2005,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7~52쪽; 정성호, 『화교』, 살림, 2004.

압박 속에 있는 디아스포라(diaspora)로 보며 이들의 네트워크는 곧 그들이 처한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이겨내고자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삶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13)</sup> 결국 화교를 국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두는 것은 동시에 이들이 중국과 현지 거주국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게 되어 오히려 정치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략의 내용을 토대로 해볼 때, 지금까지 한국화교의 연구 속에 이들의 사회관계 및 사회조직,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가령 화교사회의 사회관계와 생활사, 언어생활과 직업변천 및 혼인관념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한국화교의 문화를 그 내부로부터 고찰하는 시도들이라고 말 할 수 있다.<sup>14)</sup> 즉 이들 연구는 기존의 화교사회의 역사와 경제에 초점이 두어져 온 경향에서 화교의 생활세계로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특히 부산 지역은 전국적으로 볼 때 비교적 오랜 화교 이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여 왔으며,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현지에 정착하게 되었던 화교들이 많다는 점에서 조금은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즉 부산 지역의 화교는 한국사회의 식민과 냉전을 보다 다양한 층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3) 최승현, 앞의 책(2007), 556쪽.

14) 이창호, 「한국화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 인천 화교의 관시(關係)와 후이(會)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4집,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2008b, 75~122쪽; 김중규, 「화교의 생활사와 정체성의 변화과정: 군산 여씨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 역사문화학회, 2007, 111~150쪽; 許点淑, 「在韓華僑社會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形成と變容: 言語生活職業變遷婚姻觀念中心に」, 『동북아문화연구』 제1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6, 227~244쪽.



### Ⅲ. 20세기 부산 화교의 단상

#### 1. 전쟁과 부산 화교의 연관성

부산 지역 화교의 역사는 한국화교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지만 또한 그만의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전쟁과의 깊은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산에 화교가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개항년도인 1876년부터라고 보고 있으나 그 인구수는 인천과 서울 지역에 비하여 결코 많지 않았다. 개항으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893년 시점에서 화교 인구는 서울이 1,254명, 인천 711명, 부산 142명, 원산 75명이었다.<sup>15)</sup> 또한 당시의 화교들의 출신지는 중국의 강북지방보다 강남지방 출신이 많았다는 특징도 있다.<sup>16)</sup> 한국 화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1920년대에 이르러 전국 화교인구인 33,654명 가운데 부산은 전체의 채 1%가 되지 않는 333명에 불과하였다.<sup>17)</sup> 그러나 1952년 화교 인구 17,925명 가운데 23.3%를 차지하는 4,18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1992년까지 약 10% 대를 유지하여 왔다. 이후 한국화교의 일반적 감소 패턴 속에서 계속 감소, 2009년 기준 21,698명 가운데 8%인 1,740명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8)</sup>

이처럼 1950년을 전후하여 부산은 피난 온 한국 화교들의 집결지이자 점차 생활주거지로 변화해 왔다. 한·중 수교 이후 화교인구가 큰 감소가 없었음에도 부산 지역의 거주 화교 인구비율이 감소한 것은 부산 지역 화교 인구가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음을 의미한다. 즉 동북

15) 王恩美, 앞의 책(2008), 46쪽.

16) 王恩美, 앞의 책(2008), 55쪽.

17) 안미정, 「부산 화교의 가족 분산과 국적의 함의」, 『역사와 경계』 제78집, 부산경남사학회, 2011, 15쪽.

18) 안미정, 위의 논문(2011), 16쪽.

아시아의 냉전체제가 고착화되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부산은 많은 화교들의 거주지가 되기 시작했으며, 한·중수교라는 탈냉전적 무드,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확산에 따라 화교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부산은 한국 화교들에게 냉전체제 속에서 이동의 거점지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부산 지역 화교들에게 부산은 전쟁의 피난지에서 시작된 새로운 생활의 정주공간으로서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1년에 부산으로 피난 왔던 많은 화교 피난민들은 원래의 거주지에 돌아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청주, 마산, 경주, 충주, 서산, 목포, 영광, 김천, 포항, 안동 등의 화교소학교가 1951년에서 1952년 사이에 창립되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1952년 이후에도 부산에 남아 있던 화교는 전쟁에 의해서 생활기반이 상실된 화교였다.”<sup>19)</sup> 이와 같이 부산 화교들은 다른 지역의 화교들과 달리 전쟁 피난지에서 생활세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 2. 부산에 살았던 화교들의 단상(斷想)

한국의 화교협회는 전국 각 도와 주요 도시들(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분포하고 있으며 자체 등록되어 있는 화교들의 민원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식기관이다. 부산 화교협회는 옛 청관(淸館) 자리이자 지금의 부산역 맞은편 차이나타운 안에 자리하고 있다. 필자는 부산화교협회에 보관되어 있던 신분증(중화민국호조[中華民國護照]/중화민국여권) 83개를 토대로 부산에 살았던 화교들의 단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이미 기존연구를 통해서도 부산 화교의 이주 시기와 출신 지역 등에 관한 부분적 언급이 있었으나<sup>20)</sup> 부산화교협회 측에

19) 王恩美, 앞의 책(2008), 155쪽.

서 제공한 이 신분증은 보다 구체적 실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총 83개의 신분증은 화교 개인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재발급 혹은 사망함으로써 협회에 반납하여 지금까지 보관되어 온 것이라 추측되고 있다.<sup>21)</sup>

우선, 신분증이 발급된 연대와 출생연대를 비교하여 보았다. 출생연도와 발급연도가 명확하지 않은 두 경우를 제외하고 총 81개를 대상으로 하여 분류해 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1950년대 신분증을 발급하였다. 정확하게는 1955년 9월에 발급이 이뤄진 것을 보아 한국전쟁 이후 부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화교들이 협회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중장년층에 해당하여 당시 화교사회를 이끌던 주역들이었으리라 추측해 보게 된다.

[표 1] 출생과 발급 시기의 비교

(단위: 명)

출생연대	발급 연대				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1909년 이전	27	1	1	-	29
1910년대	17	-	1	1	19
1920년대	4	-	4	-	8
1930년대	2	1	-	1(재)	4
1940년대	-	3	-	-	3
1950년대	-	9	3	1	13
1960년대	-	-	4	-	4
1970년대	-	-	-	1	1
계	50	14	13	4	81

20) 이정희, 앞의 논문(2005); 이종우, 앞의 논문(2007); 王恩美, 앞의 책(2008); 김태만, 앞의 책(2009) 등을 참조.

21) 이 자료들은 2011년 3월 11일 기준, 부산화교협회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였으며, 도움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들 자료는 부산 화교사회의 전체적 규모나 일반적 경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발급된 경우는 이전에 등록하지 못하였거나 이주해온 사람들이 (재)발급한 사례들로 추측되는 몇 사례들로 추측되는 몇 사례들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출생 후 15세 되는 시점에서 발급된 경향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협회 측에 보관되고 있던 이들 신분증은 시기적으로 축약해 볼 때 해방 이전과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점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 시기에 보다 초점이 모아진다.

83개의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을 바탕으로 이들의 성씨를 [표 2]와 같이 분류해 보았다. 왕씨와 장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는 하나 우씨와 이씨, 판씨 등 다양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겠다. 총 83개의 사례 중 서로 다른 성씨가 41개로 나타나 특정의 종족(宗族) 집단의 이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리만치 다양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이주해 온 것이다.

[표 2] 성씨에 따른 분류

분류	성 씨	계
1	왕氏 13인	13명
2	장氏 10인	10명
3	우·이氏 등 각 5인	10명
4	판氏 4인	4명
5	김·공氏 등 각 3인	6명
6	곡·사·조·진·유·손氏 등 각 2인	12명
7	마·원·정·주·최·초·박·허·교·축·전·필·서·송·추·복·담·설·비·양·위·한·홍·전·상·소·임·란氏 등 각 1인	28명
계		83명

이렇게 이주해온 화교들의 출신지역을 본적에 따라 살펴보면 [표 3]

과 같다. 82 사례가 모두 중국 본적을 기재하고 있으며, 단 한 사례가 국내 본적(本籍)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화교와 혼인한 사례라 여겨진다. 표에서도 보듯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둥을 본적으로 하고 있는 화교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내를 제외하고 요녕성(遼寧省), 하북성(河北省), 강소성(江蘇省) 출신의 화교들은 모두 남성이라는 점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또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산둥지역 출신들은 가족을 동반한 사례가 있었다면, 그 외 지역출신자들의 경우는 남성 혼자 이주해 온 경향성이 띠는 것이다. 역시 1900년대와 1910년대 출생자들이 이동을 많이 하였고, 여성보다 남성의 이동이 많았다.

[표 3] 본적에 따른 부산 화교의 성별 분류 (단위: 명)

출생연대	본 적										계
	산둥		요녕		하북		강소		국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880년대	1	1	-	-	-	-	-	-	-	-	2
1890년대	2	1	-	-	-	-	-	-	-	-	3
1900년대	17	4	2	-	1	-	-	-	-	-	24
1910년대	14	4	-	-	-	-	1	-	-	-	19
1920년대	5	4	-	-	-	-	-	-	-	-	9
1930년대	2	1	-	-	-	-	-	-	-	1	4
1940년대	3	0	-	-	-	-	-	-	-	-	3
1950년대	4	9	-	-	-	-	-	-	-	-	13
1960년대	-	2	2*	-	-	-	-	-	-	-	4
1970년대	1	-	-	-	-	-	-	-	-	-	1
기타불명	1	-	-	-	-	-	-	-	-	-	1
계	50	26	4	0	1	0	1	0	0	1	83

\* 신분증에 안동(현 단동시)으로 표기된 것은 요녕성으로 집계함.

한편, 대부분의 한국 화교가 산둥성(山東省)을 본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4]에서와 같이 1940년대,

1950년대에도 요녕성과 강소성 출신자들이 입국하고 있었다. 아주 극소수이므로 이를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에 한계가 있고, 또 반드시 그곳에서 직접 입국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지만, 여전히 산둥성 외 지역 출신자들의 입국이 있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 또한 1886년 부산에 있던 청국상인들의 출신지는 인천과 서울 등 다른 지역에는 없는 복건성(福建省) 출신자들만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22)</sup>

그리고 한국화교의 출신지역이 강북지방 쪽으로 바뀌면서 이전에 없었던 요녕성 출신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요녕성은 지리적 근접성에 의해 일찍이 한반도로의 인구유입이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음에도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sup>23)</sup> [표 4]와 관련지어 볼 때에도, 요녕성의 단둥(구 안둥)을 본적으로 하고 있는 남성 2인이 1960년대 국내에서 출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이들은 한국전쟁 때 북에서 남하한 화교 2세일 가능성이 높다.

22) 王恩美, 앞의 책(2008), 55쪽.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 범선의 활약에 주목한 마츠우라(松浦 章) 교수는 일본, 오키나와, 고려, 대만 등을 왕래한 중세의 기록을 분석한 가운데 중국 복건성 선박의 항해가 빈도가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松浦 章, 「동아시아 해역의 문화교섭」,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제30회 콜로키움 자료), 2011, 17~23쪽). 부산의 복건성 출신자들은 일본과의 교역 선상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보게 되며, 또한 부산에 머물던 복건성 출신 화상/화인들의 진출이 한반도 동안(東岸)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23) 중국 단둥지역을 연구하는 한 연구자의 말에 따르면, 요녕성 출신자들은 19세기 후반 산둥성에서 집단이주 하였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적을 산둥성으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산둥성을 본적으로 하는 화교들의 경우에도 요녕성에서 건너온 화교일 수도 있으며 또한 산둥성에서 직접 건너왔다는 의미와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 본적과 입국 연대의 비교

(단위: 명)

본적	입국 연대														계
	1910		1920		1930		1940		1950		국내		불명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산동	1	1	13	1	5	3	17	9	1	-	11	12	2	-	76
요녕	-	-	-	-	-	-	-	-	2	-	2	-	-	-	4
하북	-	-	-	-	-	-	-	-	-	-	-	-	1	-	1
강소	-	-	-	-	-	-	1	-	-	-	-	-	-	-	1
국내	-	-	-	-	-	-	-	-	-	-	-	1	-	-	1
계	1	1	13	1	5	3	18	9	3	0	13	13	3	0	83

화교의 입국 연대는 1920년대와 1940년대 두 시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두 시대의 인구증가는 다른 양태를 띠고 있었다. 1920년대에는 상업과 노무자로 이동해 온 사람들이었다면, 1940년대는 중국의 국공내전 영향으로 인해 한반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유입은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sup>24)</sup> 왜냐하면 1931년 만보산(萬寶山) 사건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화교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고 이로 인해 화교가 귀국하는 등 인구가 급감하였다.<sup>25)</sup> 따라서 이때를 전후로 하여 국내 화교사회의 구성원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이후 경제적 요인 보다 중국의 정치적 변동에 의해 이동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화교 사회의 인적구성은 한국전쟁 기간을 거

24) 사실 194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중국의 국공내전을 전후로 한 그 변화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이 글은 제한적 자료에 의존하여 이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25) 1930년 在韓華僑는 67,794명에 이르고 있었으나, 1931년에는 36,778명으로 45.8%가 감소하였다. 이는 1931년 7월 중국 길림성 장춘현 만보산 지역에서 한·중 농민 간에 발생한 충돌 사건으로 인해 식민지조선에서 형성된 排華감정의 여파에 따른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손승희, 앞의 논문(2009), 143쪽 참조.

치며 냉전체제하에서 이들이 중국이 아닌 대만의 국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고려된다.

[표 5] 국내 거주 지역 따른 분류 (단위: 명)

출생 연대	성별		거주 지역		계
	남	여	부산	부산 외	
1880	1	1	1	인천(남1)	2
1890	2	1	3	-	3
1900	20	4	17	거제(남1,여2),대구(남1),인천(남1),김해(남1),충북청원(남1)	24
1910	15	4	15	수원시(남1),서울(남1,여1),거제(남1)	19
1920	5	4	8	이리(여1)	9
1930	2	2	4	-	4
1940	2	1	3	-	3
1950	4	9	6	금릉군(여1), 경북영주(여1), 경남의령(여1), 여수(여1),서울(남1),안동(여1),대구(남1)	13
1960	2	2	3	춘천(남1)	4
1970	1	0	1	-	1
불명	1	0	1	-	1
계	51	26	62	21	83

신분증에는 거주지가 대다수 부산으로 나타나지만 그 외 다른 지역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었다. 총 83개의 사례 수 부산을 거주지로 표기하고 있는 사례가 62개였으며, 나머지 21개의 사례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하여 수도권과 경상도, 전라도 등으로 나타났다. [표 5]에 한정하여 말한다면, 부산에 살았던 화교들은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사례는 남녀 각 1사례씩으로 이들은 인천에서 거주하였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1890년에 출생한 남자 2인과 여자 1인은 특정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부산이 거주지로 나타나고 있다. 1900년대와 1910년대에



출생한 화교들은 총 83개의 사례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주 지역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양상을 보인다. 부산 역시 이 시대에 출생한 인구가 많았고,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주초기 남자 단독 이주패턴을 보여준다. 지역적으로는 1950년대 출생한 사람들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사례가 많다는 점은 한국전쟁의 영향임을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끝으로, [표 6]은 입국년도를 연대별로 분류하여 한 것이지만 이 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점은 총 83사례 중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 2세가 26 사례로 31%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 1950년을 전후하여 화교의 제2세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입국년도에 따른 성별 분류 (단위: 명)

입국년도	성별		계
	남	여	
1910년대	1	1	2
1920년대	13	1	14
1930년대	5	3	8
1940년대	18	9	27
1950년*	3	0	3
한국출생 (1950년 이전 출생자)	13 (6)	13 (2)	26 (8)
불명	3	0	3
계	56	27	83

\* 1950년 이후의 입국년도 집계는 없었다.

1940년대 중국으로부터 내전을 피해 한반도로 이주한 1세대는 한국 전쟁을 겪으며 2세대를 형성하여 왔고, '전쟁'을 피해 온 그들은 한반도에서 다시 한 번 냉전체제로 인하여 삶의 질곡을 겪어야 하였다. 전쟁

을 피해 왔으나 역설적이게도 전쟁의 질곡은 이국의 땅에서 더욱 강한 구속이 되어 버린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냉전체제 속에 한국 화교가 구성되어 왔다는 점이 한국화교의 역사적 특수성이라 하겠으며, 특히 부산의 화교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며, 단순히 피난민의 거처로서가 아니라 한국 화교사회의 생명력을 지탱시켰던 공간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두 내전이 그린 화교 가족의 지형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 화교 사회는 냉전을 거치며 형성되어 왔고 그 의미는 곧 고향의 가족과 단절되어 온 개인들의 생애가 있음을 말한다. 이 장에서는 고향을 떠나 온 화교의 가족관계에 보다 초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가족의 이분적 분포

1942년생인 H씨는 원산에서 태어난 화교 2세의 여성이다.<sup>26)</sup> 한 번도 한국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는 그녀의 본적은 중국 산둥성 “이정”이라는 곳이다. 조부모가 “전쟁”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게 된 이후 원산과 서울에서 살았었다. 6.25 전쟁이 나고서 부산으로 피난 오게 되었으며 이곳에서 고향사람인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하게 되었다. 남편은 평양에서 일본학교도 다녔었고, 시댁은 평양에서 “돌집에 살만큼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었으나, 모두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이후 시아버지가 먼저 한국으로 건너 왔다. 아픈 시어머니의 아스피린 약을 구하기

26) 이 글에서 제시하는 H씨와의 면담 내용은 2010년 11월 28일 자택에서 이뤄진 것이다.

위해 잠시 한국에 왔던 남편은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혼자 남게 되었다. 그리고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에 우리 영감집이 돈 좀 있었나 보드라고, 돈 있으면 돈 좀 내놔라 그거 있잖아.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거. 우리 시아버지 먼저 나왔고 나와서 오짜오짜해서 대만 갔 부렸고, 우리 영감은 시엄마 자꾸 아프다 하대. 한국에 약 사러 나와 가지고 전쟁 터져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고 아들이 서로 소식도 몰라. 이 아들은 또 ..... 몰라. 혼자서 여기서 살아. 혼자 못 살아서 우리 아저씨 한국 군대 갔 어.”

친정집이 중국의 “전쟁”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이주한 화교였다면, 남편 쪽은 해방 이전부터 한반도를 왕래하였던 집안으로서 시댁이 한국과의 인연이 보다 앞선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친척들은 친정 쪽 친척들일뿐이며, 시댁 친척들은 모두 중국에 있다. 반면 그녀의 친정 친척들은 한국을 포함 대만과 미국 등에 분포하고 있다. 시댁 쪽으로는 시동생과 큰집(형)의 조카들이 중국에 있을 뿐이지만, 친정 쪽에는 대만에 작은 고모부와 조카들, 큰딸이 살며, 미국에는 사촌이 살고, 한국에는 그녀의 두 아들과 막내딸, 그리고 사촌 여동생이 살고 있다.

이와 같은 분포는 모두 전쟁의 피난을 겪은 화교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이주 형태에 따라 이후 형성되는 친척의 분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H씨의 남편은 대만으로 간 부친을 만나 부산에서 살았으나 혼자 이주하였기에 시댁 쪽의 친척들과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 반면 친정 가족은 집단이주함으로써 이후 보다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씨의 남편은 사망하기 전 국내 모 기관에서 초청을 받아 동생이 잠시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고향의 가족을 만나지는 못하였다. 어머니의 약을 사러 잠시 왔던 남편이 고국의 내전

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는데 너무나 역설적으로 한국에서 남편은 그와 상관없는 타국의 내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한국전에 참전한 고모부의 친구들이 화교였느냐는 연구자의 물음에) 응, 전부 다 화교지, 전부 다 피난 살러 나왔지. 우리 작은 고모부도 혼자 나왔어. 그래 식구들 없어 군대 갔지. 우리들 마치 식구들 한 뭉텅이 나와야 (군대 가지 않지). 우리 영감 혼자 나왔어. 약 사러 나왔다가 중국에서 전쟁 터져 가지고 못 들어가고 한국에 있었어. 한국 약 사러 와서.”

만약 가족이 함께 있었다라면 참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 마침 참전한 사람들이 혼자 ‘나온’ 사람들이기에 우연의 일치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녀에게 가족은 남편이나 작은 고모부처럼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방어막이 되어 줌을 말하고 있다.

“우리 저기서(중국) 막 바로 여로(한국) 피난하러왔잖아. 6.25 사변 때 식구들 다 같이 있잖아. 안 잡혀 갔잖아. (기억났다는 듯이) 맞아! 일본하고 한국 터졌잖아! 중국서 일본하고 터졌잖아! 그래 전부 전쟁 일어났지. 그래 (사람들이) 일본 학교 가지(간 것이지).”

중일전쟁,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 그리고 6.25 전쟁을 통틀어 H씨가 주장하는 것은 가족이 흩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참전한 사람의 경우 그들은 왜 다른 나라의 내전에 참전해야 했는가의 의문은 남아 있다. 고모부와 그 친구들은 한국의 모 충혼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반면, 죽기 전 남편은 자신이 참전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

나 다 소용없다고 하여 폐기하였다. 20세기 한국과 중국의 내전을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겪어야 했던 한 부자(父子)는 부산의 서로 다른 두 곳에 각각 안장되어 있다.

## 2. 관계의 복원과 낯설음

1958년 출생한 J씨는 화교 2세인 남성으로 부산에서 태어났다.<sup>27)</sup> 그의 부친은 산동성 연대가 고향이며, 부친이 스무 서너살 가량 되던 해에 한국에 와서 이미 평택에 거주하고 있던 화교 2세인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J씨의 부친 역시 혼자 이주한 사례였으나, 해방 이전부터 비단장사 하던 조부가 한국에 살았었다고 한다. 그러나 만보산 사건으로 인해 모두 귀국하게 되었고 이후 부친 혼자 이주한 것이었다.

“스물셋 스물네살 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도망 나왔어요. 동생과 어머니 계시고 돈 좀 있었는데, 친중화민국파라서 형제가 상의하여 형(부친)은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을 나가라, 몇 냥 들고 나온거라. (부산의 예를 들면) 구포역쯤에서 배 부두로 나와서 진역에서 막아 (집으로) 되돌아가니까 동생이 그 돈 나눠주고 형인 내가 나가볼게 해서 나왔고 그래서 삼촌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고.”

부친은 고향 연대에서 출발하여 청도로 간 후 인천으로 올 수 있었으며 이후 서울에서 살았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혼인을 한 모양이다. “반은 결혼 받은 도망하듯이” J씨의 부모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왔다. 이 후 외갓댁은 대만으로 이주하였으나, 화교 2세인 모친과의 결혼으로 부친은 보다 빠르게 국내 정착할 수 있었지 않

---

27) J씨와의 면담내용은 2011년 2월 20일, 부산 차이나타운 내에 있는 한 화교의 가게에서 이뤄진 것이다.

았는가 여겨진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H씨의 남편처럼 해방 이전 국내 체류의 경험을 가진 화교가 재차 단신으로 이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착과정에서는 이전의 경험보다 현지의 또 다른 화교 가족의 도움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현지에 정착한 화교가 고향의 가족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었던 것일까? 한·중수교가 이뤄지기 전 중국의 고향을 떠난 화교가 고향 가족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그렇다하여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J씨의 말을 빌리면, 대계 1세들은 미국과 홍콩 루트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수교 전 어렵게 찾아 간 고향에서는 “누구야 누구 아들 찾아서 왔다”고 방송도 하고, 아들 만난 어머니는 “아들아 너도 많이 굶었지” 하면서 달걀 3개를 내놓더라는 이야기와 일주일 체류하면서 내내 야채만을 먹었던 이야기 등 화교 1세들의 가족 상봉 일화들이 무수하다.

J씨의 부친 역시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홍콩을 거쳐 간 것인데 사전에 고향에 보낼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부치고, 일본에서 소니 TV를 사고, 금반지는 “한보따리” 가지고 갔다. 그리고 가서는 비포장도로 였던 시골의 자기 집 앞 도로를 포장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부친이 돌아올 때에는 단지 오리 알과 거위 알을 가지고 왔다. 두 번째 갈 때에는 다시 필요한 물건들, TV와 오토바이, 자전거, 오디오 카세트 등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두 번째 다녀오고 나서 부친은 “너희들은 가지 마라, 가면 외국인 사람으로” 분다면서 이후 방문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인 즉은, 동생과 함께 대하(大蝦)를 사러 갔던 부친을 가게주인이 통통한 형과 나이 들어 보이는 동생을 구분하지 못하고 부친을 “외국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나도 중국사람인데.....” J씨는 이 일로 인해 부친이 고향을 가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일화들은 당시 경제적으로 낙후한 고향의 풍경이나 생활상을 담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위에 있는 한국 화교의 위상을 반영하

는 담화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문은 왕래가 자유롭지 않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이었다. 1세의 고향방문은 헤어진 가족의 상봉과 더불어 양쪽으로 나뉜 가족들의 관계를 엮어 내었다 할 것이다. 하지만 끊어질 듯 했던 가족 관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원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다 돈 벌었네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고생했는데, 땅 없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없고, 중국인이라고 말 못했어요. 여기서 고생한 거를 지금은 알아도 (중국에서) 와서 보니까. 성공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친척이 취직 소개해주고 서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언어 능력이나 기술이 있는 재주가 있느냐에 따라 임금차이가 나서 누구는 불러주고 누구는 안 불러주고 이런 문제들이...”

한중수교 이후 왕래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한국 화교사회는 끊어졌 듯했던 고향 가족과의 관계를 어렵사리 '복원'해 왔고, 그 시작은 1세들의 개인 의지에서 어렵사리 길을 열었으나, '낮선 풍경'처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게 이르렀다. “중국사람”다운 모습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자신, 초청한 친척들 사이의 임금격차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이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가족, 친척 관계에 개입하여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험거워진 관계를 다시 꿰메어 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변화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자신들을 낮설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 3. 전쟁 후 제3의 공간

전쟁은 분명히 배척해야 하는 적국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목적적으

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생활 세계에서는 그 자체로 배척해야 하는 대상과 존재를 두지는 않는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다. 화교들의 생활세계에는 한국과 중국 외에도 이념적 갈등으로 교류가 없던 두 국가를 매개한 제 3의 공간이 있었다. J씨의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듯이, 1세대들이 중국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혹은 중국 가족들이 한국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양국의 ‘틈새’ 공간으로서 홍콩과 미국, 일본 루트를 이용하였다. 특히 부산의 화교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경기호황을 누리던 일본에서 생계도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K씨(1935년생)는 비단장사 하던 양아버지의 수양딸로 자라 집안 소개로 혼인을 한 한국 여성으로, 그녀의 남편은 “공산당이 싫어서” 인천으로 건너온 사람이었다.<sup>28)</sup> 해방 이전부터 잡화상을 하며 국내에도 친척을 두고 있었던 K씨의 남편은 이미 국내에는 남편의 사촌형 2명(대구와 부산 거주)이 살고 있었기에 “형님을 찾아간다고 (부산) 온천장에 오자마자 얼마 안 되어 6.25가 터져” 버렸다. 수교가 되기 전 남편은 일본에 가 일을 하면서 당시 중국에 있던 모친과 전처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다. 수교 후에는 한국의 큰아들과 함께 산동을 방문하여 전처의 자식들과 상봉을 하였다. 지금 남편의 무덤은 부산 동래에 있으며 고향에도 가묘를 만들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H씨의 친정 오빠는 대만으로 이주하였으나 살기가 힘들어서 이후 일본으로 갔고, 그곳에서 번 돈을 가족에게 송금하여 결국 대만에 집을 샀다. 이 외에도 화교 2세 R씨(1961년생)의 큰누나는 어린 조카를 두고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한국, 일본, 대만을 연결하는 “보따리 장사”를 하기도 하였다.<sup>29)</sup>

28) K씨는 2010년 6월 13일, 부산시 엄궁동 화교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실에서 만났으며 면담은 인천화교 연구자 이창호씨와 함께 이뤄진 것으로 이에 감사드린다.



이처럼, 한·중 사이에서 '일본'은 가족과 생계문제에 있어 매개와 틈새의 공간이 되어 왔다. 이러한 틈새는 냉전체제 하에서 상호를 직접 오고갈 수 없는 조건, 경제적 벌이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 어느 쪽으로도 온전히 귀속될 수 없는 위치가 제3의 보충적 공간을 통해 생활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부산에 거주하는 그리고 거주하였던 화교들에 관하여 서술해 보았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는 부산화교협회에 보관되어 있던 신분증을 분석하여 부산 화교의 단상을 살펴보았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의 가족사를 통해 부산 화교의 미시적 생활세계를 그려보고자 하였다.

부산화교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83개의 신분증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후반까지를 아우르는 긴 시간적 폭을 가지고 있었으며, 화교가 특정 종족 집단에 의한 집단적 이동이 아니라 다양한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이동이었음을 지적하였다. 대다수 산둥성 출신자들은 가족을 동반하여 이동하였다고 추정되는 반면 여타의 지역 출신자들은 남성 단독의 이동형태를 보여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국내로 들어온 시기는 1940년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920년대였다. 이 점은 화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던 1920년대와 지금 화교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적 배경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1940년대는 중국의 내전을 피해 입국한 화교들임을 보여 준다. 이점은 화교 남성의 한국전쟁 참전하였던 것과 대만국적을 선택

---

29) 2010년 3월 18일, 부산화교협회 사무실에서 이뤄진 면담내용 가운데에서.

하게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전쟁 피난민으로 이주하여 부산에 살기 시작한 화교의 가족과 전쟁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 속에서 단독으로 이주한 경우와 가족이 집단적으로 이주한 경우에 따라 친척의 분포도 냉전체제의 영향을 반영, 이분화된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분포는 중국 “전쟁”을 피하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형성되어 온 것이라는 점에서 가족과 친척의 이산과 분산과정에서 냉전이라는 이념체제가 어떻게 개입하고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 개인으로서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H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명료해졌다. 그녀는 “식구가 다 같이” 있음으로써 전쟁에 잡혀 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전후관계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단독으로 이주한 남성이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한국전쟁은 중요한 변수였으리라 생각한다. 고향에 두고 떠나 온 화교 1세대들은 한·중 수교 이전, 다양한 방편을 통해 가족들과 연락을 취해 왔으며, 이때 틈새적 공간으로써 활용 된 곳이 일본이었다. 화교 2세대들에게는 생계기반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면서 일본은 한국화교에게 제3의 생활공간으로써 남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이다. H씨가 말해주었듯이, 중일전쟁, 일본의 한국 식민지 배와 같이 가족의 이산이 초래 된 데에는 한·중 두 곳에서 모두 일어난 내전 외에도 일본과 벌인 “전쟁”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 가족과의 상봉 이후 끊어질듯 한 가족과 친척들의 관계는 다시 복원되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는 또 다른 낯선 상황으로 그들 앞에 놓여 있다.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회적 화두로서 ‘다문화’가 부상(浮上) 한 데에는 한국사회에 ‘참여한’ 이주노동자와 동남아시아 여성들에 빛을 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 참여자로서 이들의 존재를 방기해서는 현실적/경제적 문제를 직시할 수 없게 된 한계상황에서 도출된

점이라 하겠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함께 겪어 가고 있는 성원으로서 그들의 위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국 화교 역시 민족이 다르고 역사, 언어, 정체성이 다른 집단으로서 막연히 구별짓기 보다는 사회적 공동체로서 그들의 겪어 온 한국사회의 또 다른 역사를 인정하는 데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11년 5월 31일에 투고 되어,  
2011년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1년 6월 29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강진아, 「韓末 彩票業과 華商 同順泰號: 20세기 초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와 한국」, 『中國近現代史研究』 제40집,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08.
- 강한균 · 배국향, 「화인자본의 활용과 한국경제의 글로벌화」, 『국제경영리뷰』 9(1),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05.
- 김원경, 「釜山驛 商店街의 패턴1」, 『한국지리학회지』 5(1), 한국지역지리학회, 1999.
- 김중규, 「화교의 생활사와 정체성의 변화과정: 군산 여씨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 역사문화학회, 2007.
- \_\_\_\_\_, 「화교학교의 역사를 통해 본 화교문화의 형성과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역사문화학회, 2010.
- 문성준 · 서탁, 「인천 차이나타운의 역할」, 『한국언론학보』 52(6), 한국언론정보학회, 2008.
- 문은정, 「20세기 전반기 마산지역 화교의 이주와 정착」, 『대구사학』 제 68집, 대구사학회, 2002.
- 박은경, 「태국, 인도네시아 및 한국 화교의 Ethnic Identity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제11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79.
- \_\_\_\_\_, 「韓國 華僑 社會의 歷史」, 『震檀學報』 제52집, 진단학회, 1981.
- \_\_\_\_\_, 「화교의 종족 정체성과 이동의 관계」, 『현상과 인식』 제2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2.
- \_\_\_\_\_, 「종족성 이론의 분석」, 『한국문화인류학』 제19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7.
- 손승희, 「1931년 植民地朝鮮의 排華暴動과 華僑」, 『中國現代史研究』 제 41집,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09.

- 안미정, 「부산 화교의 가족 분산과 국적의 함의」, 『역사와 경계』 제78집, 부산경남사학회, 2011.
-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 2005(2003).
- 이광규, 『民族과 國家』, 一潮閣, 1997.
- 이병인, 「近代中國의 海外移民과 '故國」, 『東洋史學研究』 제103집, 동양사학회, 2008.
- 이정희,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1905~1955년)」, 『大邱史學』 제80집, 대구사학회, 2005.
- , 「중일전쟁과 조선화교: 조선의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中國現代史研究』 제35집,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07.
- 이종우, 「한국 화교의 현지화에 관한 연구: 부산 거주 화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창호, 「한국화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 인천 화교의 관시(關係)와 후이(會)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4집,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2008a.
- , 「차이나타운의 재개발과 의미의 경합: 인천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제41집, 한국문화인류학회, 2008b.
- 이화승, 「전주 화교사회를 통해 본 한국 화교의 고찰」, 『史林』 제26호, 수선사학회, 2006.
- 장수현, 「한화(韓華), 그 배제의 역사」, 『당대비평』 19호, 생각의 나무, 2002.
- 정성호, 『화교』, 살림, 2004.
- 정혜중, 「개항기 인천 화상 네트워크와 화교 정착의 특징」, 『중국현대사연구』 제36집,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07.
- 최승현, 『화교의 역사 생존의 역사』, 화약고, 2007.
- 한동수, 「인천 청국조계지 내 공화춘의 역사변천」, 『중국학보』 제60집, 한국중국학회, 2009.

- 황보영희, 「부산 청국조계지에 관한 연구」, 『港都釜山』 제25호, 2009.
- 李丹·尹寧, 「釜山『老華僑』的民族与國家認同研究」, 『東亞研究』 제58집, 서강대 동아연구소, 2010.
-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國華僑-冷戦體制と『祖國』意識』, 三元社, 2008.
- 許点淑, 「在韓華僑社會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の形成と變容: 言語生活・職業變遷・婚姻觀念を中心に」, 『동북아문화연구』 제1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6.

Abstract

## 'War' and Family through the Immigration of Overseas Chinese in Busan

An, Mi-Jeong

Korea overseas chinese(*Hwagyo*) is a representative ethnic group in Korea society which is contact with other cultures. Their immigration history is very closely related to Korea history of the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They can be characterized as it is most of them from Shandong in China.

This article is based on *Hwagyo* women's life history and old ID card data 82. Immigration history of the family shows escape the war came to Korea and the phase of Busan *Hwagyo*'s social life.

*Hwagyo* relatives's distribution is tended to divide into two(China and Taiwan) its rely on alone or together as a family immigration. It reflects the impact of the Cold War history. *Hwagyo* has been used Japan as an intermediate space for a livelihood and the separated families between Korea and China. Were broken family relationships that will be restored again, but the social changes around them, just another 'stranger' is making the situation.

---

32 石堂論叢 50집

Key Words : Korea Overseas Chinese, Immigration,  
War, Cold War, Family, Busan.